



한중수교와 양계산업

지난 8월24일 한국과 중국은 수교(修交)에 서명을 함으로써 역사적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냉전의 마지막 잔재를 없앴다는 평가를 받았다.

과거에는 정식수교가 없어 제3국이나, 해상에서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교역을 해오다 교역량이 커지고, 동구권의 잇단 변화추세에 따라 개방정책을 펴게되자 무역대표부를 두어 그간 직교역을 해오기에 이르렀다.

현재 중국의 인구는 11억이며, 1인당 GNP는 300달러 수준인 개도국이다. 그러나 문화혁명 이후 농업정책의 근대화를 추진하여 절대적 빈곤상태는 벗어난 선에 이르렀다. '91년에는 87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등 급속한 경제개혁을 서두르고 있는 중국은 풍부한 자원과 무한한 인적자원을 배경으로 생산비를 계산하지 않고 돈 벌이라면 무엇이든 팔겠다는 식으로 수출을 하고 있어 양계인들은 이를 경계해야 한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연간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1.6kg로 아주 낮은 편에 머물러 있으나 이미 '89년에 3만톤 정도를 수출한 바 있다. 매년 유럽의 우수한 종계 회사들이 중국에 육계 및 산란종계를 수백 만수씩 판매하고 있어 점차적으로 양계산물 생산이 증가할 것은 분명하다.

이와 관련하여 잇단 양계업에 투자할 사람을 물색키 위해 내한하여 접촉이 잦다는 이야기까지 빈번하게 흘러나오고 있어 닭고기가 개방되는 시점에 거리상, 가격상의 유리한 점을 내세워 밀어내기식 수출을 시도하여 외화획득에 나설 수도 있다.

우리가 일본과 근접해 있고, 그 시장이 세계 최대의 수입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수출에 한참 큰 기대를 걸었지만 까다로운 일본인의 식습관, 수준높은 상품화, 철저한 위생개념으로 아직도 수출의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양계산물의 자급도가 100%에 달하고 있으나 소비형태나, 유통구조상에 있어서 중국이 풍부한 사료자원, 저렴한 인건

비를 바탕으로 값싸게 신선육으로도 우송이 가능한 거리에 있는만큼 수출을 시도한다면 양계업중 특히 육계산업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해야 할 입장에 처할 수 있게된다.

금년 7월까지의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농축산물의 밀수입액은 100억원대에 이르는데 중국산 농산물이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에 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7억원대에 달해 앞으로 예의주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가까와 신선육 수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듯이 중국 또한 우리나라에 어떤 형태로건 수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93년, 즉 내년부터 미절단 신선육이 수입개방 되도록 예시가 되어 있어 수출 이전에 수입이 먼저 이루어질까 걱정스러우며 대비책으로 과감한 유통구조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양계업 표준소득감소

양계장을 방문하거나, 행사장에서 양계인을 만났을 때 양계업을 왜 하느냐고 질문하면 “그야 돈을 벌기 위해서지...”라고 대답한다. 소득을 더 높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하고 물으면 “계란·닭, 병아리 값을 더 받으면 된다”라고 모두 쉽게 답변한다. 왜 못받습니까라고 또 반문하면 “상인들이 쥐야 받지”라고 쏘아붙인다. 즉 알지도 못하면 묻지도 말라는 식이다. 생산자와 상인은 어떤 관계인가를 놓고 요즈음 티격태격 논란이 일고 있지만 결론이 없다.

어쨌든 양계업은 생업의 수단임에는 틀림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수입을 더 늘려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개방을 전제로한 대비책에는 전혀 소홀한 편이다. 출하가격만 높아지면 수입이 증가한다는 당연논리만 주장하고 있다.

여건은 일각이여삼초로 변하고 있다. 품질과 가격경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결국 생산비가 낮은 농가,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농가만이 경쟁의 대열에 설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난번 농진청이 연간 100수를 기준으로 산란계와 육계의 표준소득분석표를 작성 발표한 바에 따르면, 산란계의 경우 '89년 22.0%, '90년 29.2%, '91년 21.7%였고, 육계는 22.1%, 21.2%, 19.1%로 각각 나타나 실제 소득율이 감소추세에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어떤 채란업자는 옛날에는 계란1개 값이 두부1모, 버스표1장, 우유1병과 같았는데 요즈음은 절반가격도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를 꼭 생산과잉 때문에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된다. 물론 가격비교상으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수입개방이 이루어지는 전제 하에서는 과거의 계란 값이 비쌌다고 치고 감소해가는 소득율을 어떻게 감수해 나갈 것인지 방안을 찾아야 한다. 상인들이나 외국인들이 손실을 보강해 줄리가 없기 때문에 생산비를 낮추어가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생산비절감은 농장 여러 곳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절감요인을 찾되, 우선 낭비되는 것부터 제거해 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양계**